

## 사회배경

### 차 례

1. 지리적 환경
2. 역사적 환경
3. 인문적 환경
4. 세시풍속

### 1. 지리적 환경

신례리는 1리와 2리로 나뉜다. 신례1리는 한라산 남쪽에 접해있는 남원읍 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위미1리, 서쪽으로는 하례1, 2리, 남쪽으로는 신례2리와 접해 있다. 북쪽은 한라산에서 완만한 경사로 이승악, 수악, 흑악, 성길악 등 여러 개의 군소 산악이 있으며 수악 서쪽에는 천연기념물인 왕벚나무 자생지가 있다.

하천은 마을 서쪽으로 신례천이 있으며 이 하천 상류에는 제1횡단 도로변에 수악 계곡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 울창한 상록수림과 가을단풍을 조망하는 아름다운 곳이다. 또한 마을 동쪽으로 종남천이 있으나 이는 건천이다.

신례1리의 토지는 논이 전혀 없으며 대부분의 토지는 감귤과수원과 밭

으로 이용되고 있다. 용암층 밑을 복류하는 지하수는 해안지대의 용암층 말단부에서 용출되므로 주민들에게 음료수로 제공되고 있다.

신례2리는 종남천을 동쪽으로 경계를 하여 위미1리와 접해 있고 서쪽은 하례리와 '새기네'를 중간에 끼고 있으며, 북쪽은 '상방터'와 '종남골'을 연결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신례1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일주도로 남쪽으로 해안가를 따라 동서남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신례2리는 제주도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해안 취락이다. 마을의 토지는 논이나 수림지역은 전혀 없으며 비교적 평탄하고 토질이 양호하여 대부분 감귤과수원으로 조성되었으며 마을 형성 당시부터 주민들이 농사일보다는 어로 작업에 더 관심을 보인 탓인지 대부분의 토지는 다른 지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 1) 오름

### ① 이승이오름

사려니 서쪽 1.5km의 산림지대에 누워 있는 이승이오름은 남원읍 신례리에 속한다. 제1횡단도로에서 가까워 논고교나 수악교 부근에서 들어오는 숲길이 나 있다. 표고 539m에 비고는 90m 안팎. 정상봉을 중심으로 '스'자형 등성마루가 북동과 남동쪽으로 뻗어 북동쪽 등성이에 또 작은 봉우리가 부풀어 올라 있다. 돌아가며 가파른 숲사면이고 움푹 팬 동사면엔 동향으로 벌어진 말굽형 화구가 뚜렷하다.

오름 양쪽에 계곡을 끼고 있어 동쪽의 화구 언저리에서 발원하는 계곡은 남동으로 흘러 위미 1리 전포교를 거쳐 바다로 들어가는 종남천의 상류이며 서쪽을 끼고 남류하는 계곡은 수악교를 거치는 수악계곡과 합류, 쇠기내(하례천)를 이룬다.

이승이오름은 이승이오름이라고도 하며 줄여서 이승이, 또는 이승이라고 부른다. '이승이'나 '이승이'의 어원은 분명치 않으나, 산 모양이 솟처럼 생겼고 삶이 서식한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있다. 오늘날 지도에는 이승악(狸升岳)으로 표기하였고 민간에서는 '이승이오름, 이생이오름'

등으로 부른다. 북쪽에는 화구호로 이름난 동수악, 남서로는 물도 없는 물오름(水岳)이 숲 사이로 내다보이며 서쪽에는 제1횡단도로의 명소 수악교가 가까이 있다.

### ② 예촌망

예촌망은 걸세오름을 끼고 도는 효돈천이 서귀포시와 경계를 이루며 바다로 들어가는 하례리의 남단 바닷가에 위치하며 서쪽 기슭의 난대림 울창한 효돈천 하구와 바다에서 깎아지른 단애의 빼어난 경승으로 이름나 있다.

하례리, 신례리 일대를 말하던 예촌(禮村)을 옛날에는 호촌(狐村) 또는 호아현(狐兒峴)이라 했고 오름이름도 호촌봉(狐村峰)이라 했다. 여기에 봉수대가 있어서 호촌봉(狐村峰) 또는 호촌망(狐村望)이라고 하던 것이 뒤에 예촌망(禮村望)이라고 부르게 됐으며 지금은 오름 자체를 가리키는 호칭이 되었다. 예촌망(狐村봉수)은 북동쪽으로 자배(資輩-자배오름)봉수, 서쪽으로 삼매양(三每陽-삼매봉)봉수와 교신했었다. 일명 망오름이다.

일부 수림이 우거진 데를 제외하고 거의 과수원들이 들어서 있으며 산 위는 넓고 평평한 구릉 지형이다. 동쪽과 서쪽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어 동쪽이 표고 67.5m, 서쪽이 표고 54m이다. 각각 '큰망', '족은망'이라고 부르며 그 경계라 할 수 있는 구획을 '둠'이라 부르고 있다. 족은망과 큰망 사이의 해안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큰 후미를 이루며 그 벼랑 위에 서면 바다 쪽으로 뻗어 나간 양쪽 단애에 파도가 부딪쳐 부서지는 광경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족은망 너머 서쪽으로는 보목리의 절오름과 그 앞바다의 숲섬이 닦은꼴로 나란히 시야에 들어온다.

### ③ 논고오름

제1횡단도로의 성널오름 휴게소 남쪽 동수교에서 논고교 사이 활엽수를 뚫고 지나는 구간은 숲터널이란 이름으로 하나의 명물이 되고 있다. 도로 양변 울창한 숲의 휘어진 가지들이 구불구불 2km 남짓의 긴 터널을 이룬 가운데 관광객들이 차에서 내려 산책을 하거나 사진을 찍는 모습을

곧잘 볼 수 있다.

숲터널 중간쯤에 난간 없는 다리가 있다. 지도상에는 제2논고교로 나와 있으며, 터널 북쪽 어귀에 있는 지금의 동수교에는 제1논고교, 남쪽의 논고교는 제3논고교로 되어 있다. 이들 다리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논고오름은 숲터널 다리(제2논고교)에서 가까워 서쪽 약 1km의 삼림지대에 가로누워 있으며 작은 숲길이 나 있다. 그러나 이 일대는 이미 국립공원 구역 내인데다 정규 등산로도 아니어서 공원관리사무소 허가 없이는 무단 입산이 금지되어 있다.

논고오름은 행정구역상 남원읍 한남리와 신례리 경계에 걸쳐 있다. 동성마루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의 세 봉우리로 이루어지고 이들에 에워싸인 굽부리가 동그랗게 패어 있다. 환형(環形)의 산정화구이다. 북봉이 정상으로 표고 843m이다. 동봉 옆으로 화구가 열려 있는 듯이 보이나 그것은 남·북봉에서 이어지는 동성마루가 낮아지면서 안부(鞍部)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며 그 너머 동쪽 사면에는 작은 골짜기가 패어 있다.

이 오름은 북쪽과 남쪽 양쪽에 계곡을 끼고 있으며 이들은 제1횡단도로를 가로질러 나간다. 북쪽 계곡은 숲터널(제2논고약)-동수약-한남교-남원교를 거치는 서중천 상류이고, 남쪽 계곡은 논고교(제3)-신례마을을 거쳐 하례교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쇠기내(하례천)를 이룬다.

#### ④ 보리오름

논고오름 남서쪽 1.5km에 있는 보리오름은 남원읍 신례리에 속한다. 논고오름에서 계곡 건너로 작은 숲길이 나 있으며 논고교 남쪽에서도 1km 남짓의 길이 들어와 있다. 서어나무 등 교목림 지대에 우뚝 솟아 있으며 위가 평평한 원추형으로 화구라 할 만한 것은 없다. 표고는 740m이다.

사면의 숲그늘에는 논고오름에서와 같이 관중의 군락을 볼 수 있으며 석송과(石松科)의 상록 다년초인 뱀톱도 곳곳에 자라고 있다. 양치식물인 관중은 뿌리로 면마엑스를 만들어 촌충과 십이지장충 등의 구제약으로 쓰이며 낙엽수림에 흔하게 자라는 약초이나 맛이 쓰고 독성이 있어 폐결핵 환자나 임산부에게는 위험하다고 한다. 산숲 어두운 그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짤따란 키의 뱀뿔은 뱀이 선 모양인 줄기가 온통 톱니모양의 잎으로 싸여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리오름 서-남서쪽을 끼고 흐르는 깊은 계곡은 쇠기내의 상부주류인 수악계곡이다. 울창한 상록수림으로 덮인 채 군데군데 단층과 용암류와 암벽이 기관을 이루는 이 협곡은 제1횡단도로의 수악교를 명소이게 한 아름다운 경관이 사라오름에서부터 절승을 이루며 이어져 내려온다.

### ⑤ 성널오름

한라산 허리를 관통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제1횡간도로(43km) 중간 지점인 성널오름 입구는 해발 750.2m로서 이 도로상의 가장 높은 지대이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가르는 고갯마루이다. 동시에 한라산의 동쪽 척릉을 타고 오르는 등산코스의 오름목이기도 한 이곳에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휴게소와 매점 등 등산객과 관광객을 위한 시설에 넓은 주차장도 갖추어져 있다.

행정구역상 조천읍 교래리와 신례리의 경계에 걸쳐있다. 옛 문헌에도 석벽여성관(石壁如城板)이라 했듯이 산 중턱에 암벽이 널 모양으로 둘러 있는 것이 마치 성벽처럼 보이는 데서 성널오름이라 하고 한자로도 성판악(城板岳)이다. 이 같은 바위벼랑은 안에 들면 산 위며 계곡의 높드리(골짜기의 높은 부분) 등 여러 곳에서 만나게 되지만 외관상으로는 남-동쪽 사면 중턱에 부분적으로 볼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약 3km, 한라산 등산로 따라 넉넉잡아 1시간 30분가량이면 성널오름 북서쪽에 이르고 여기서 등산로를 버리고 서쪽으로 돌면 사라오름과의 사이에 초원이 나온다. 이 곳에서 올라붙는 서사면이 비교적 완만하고 꼭대기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 길이 뚜렷이나 있지 않는 데다 조릿대가 무성한 수림지대여서 자칫하면 산 속에서 헤매기 쉽다.

표고 1,215.2m에 비고만도 제일 낮은 쪽이 200m에 가까우며 정상에 삼각점이 박혀 있다. 이 일대에서 삼각점을 가진 오름으로서는 한라산 주봉에 가장 가깝다. 그 직선거리 약 6km, 그 사이 등산로 양쪽에는 산정에

화구호를 가진 사라오름과 등성마루에 붉은 '송이'가 드러난 **홍붉은오름**이 솟아 있다.

사라오름과 사이인 성널오름 서녘 자락은 '족은속밭'이라 부르는 초원이 다. 그리고 그 북쪽, 즉 성널오름 북서쪽 일대도 '속밭'이라 부르는 초원지대이던 것이 지금은 소나무와 삼나무로 메워져 옛 모습을 찾을 길이 없다. 해발 1,000 ~ 1,100m 지대에 산중개야(山中開野)를 이룬 이 속밭에는 옛날 제주시 삼의양오름 동쪽에서부터 서귀포시 영천동에 이르는 산중도로가 나 있기도 했으며 진달래와 팽팽나무 군락에 철따라 들꽃 산꽃이 피어 있고 나비와 산새소리, 방목우마가 어우러지는 평화경으로 나비학자로 유명한 석주명은 한라정원이라 일컬어 그 아름다움에 감탄해마지 않았다고 한다.

제주도에 산재하는 기생화산은 그 분포상태를 바탕으로 용암류의 분출, 암질 등 측면적 고찰을 가해 중앙선·해안선, 또는 방사형 구조선 등 몇몇 화산 구조선으로 구분, 상정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된 것이 한라산정을 지나 동서 장축 방향으로 뻗는 중앙선으로 이 선상의 기생화산들은 각각 화산활동의 초기에서 말기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 중앙선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성널오름은 성판악 용암이라고 일컬어지는 조면암으로 형성되어 험준한 절벽을 가졌으며 심한 풍화로 인해 암질이 취약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정상부는 북쪽을 주봉으로 남쪽과 남동쪽에 작은 봉우리가 형성되었고 우묵진 그 북편은 수림으로 덮인 가운데 바위들이 보인다. 이것이 분화구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어떤 학자는, 이 오름은 화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암괴를 주체로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급사면인 테다가 깊고 얇은 골들이 패었으며 남동쪽과 북동쪽 사면도 급경사로 벌어지면서 계곡을 이루고 있다. 그 하나인 성널계곡은 천연림 속에 크고 깊어 절경이기도 하거니와 성널폭포를 간직해 있어 오래 전부터 약수터로 이름나 있다.

성널폭포는 족은속밭에서 성널오름을 남쪽으로 끼고 돌면 가깝고, 제1 횡단도로에서 성널휴게소 남쪽, 소위 숲터널 중간 쯤에서 논고오름을 왼

편에 두고 1시간이면 넉넉한 거리이나 함부로 입산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약수터라 함은 물맞이터를 말하며 마시기도 하지만 산중에서 솟아 흘러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물에 전신을 두들겨 맞는 것이다. 이것을 ‘물맞는다’고 한다. 신경통과 위병 등에 효험이 있다고 하며 예전에는 격심한 물질로 일년 내내 시달리던 해녀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한다. 이후에 성널 폭포도 상류에서 물을 끌어 남원읍 일대의 상수용으로 대기 시작한 뒤로부터는 물줄기가 크게 줄어들었다.

### ⑥ 칩오름

서귀포 산업과학고 맞은편에 나란히 선 두 오름의 위쪽 것이 영천오름, 아래쪽이 칩오름이다. 영천동 한길에서 남동으로 1.5km쯤 들어가면, 층층으로 들어선 밀감 밭이 남사면 일대를 뒤덮은 칩오름에 이른다. 예부터 칩이 많았다 하여 칩(칩)오름이고 꼭오름이라고 부르는 이도 많다. (‘꼭’은 ‘칩’의 제주어) 일부 급사면을 제외하고는 기슭에서 중턱, 중턱에서 정상 직하에까지 밀감밭이다.

표고는 271m이며 꼭대기인 남봉에서 휘어 뺨은 등성이는 맞은편에 숲이 울창한 북봉을 이루며 다시 동쪽으로 구부러져 내리는데 그 사이에 움푹 팬 말굽형 굽부리가 남동 방향으로 벌어져 있다. 으스스히 후미진 그 곳은 숲이 칩칩하고 칩덤불이 무성하게 엉클어져 있다.

상효 출신의 선비 오계묵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칠언시 ‘葛岳(갈악-칩오름)’을 읊었다.

이 산이 칩뿌리 형국으로 마음을 들렀다고,  
유람 온 이 여기 와 시를 지어 말하였네,  
산 위는 못을 이룰 만큼 깊숙이 패었고,  
남녘 둔덕엔 으스스하게 혈문이 열렸도다.  
봄바람에 나무끼는 막막한 역새,  
아지랑이 감도는 무성한 숲속,  
여자아이는 삼가서 캐러 가게 마시오,  
꼭대기에 오르면 놀라기가 일쑤라오.

과거에는 음력 8월이 되면 길게 뻗은 칩덩굴을 걷어다 말려서 마소의 고삐나 새끼·삼태기 등을 엮었는데 아녀자도 이를 도와 산에 칩을 캐러 다녔다고 한다. 이 칠언시도 그 때의 모습을 담았다고 본다.

북쪽 등성의 숲 속에 한 제터가 있다. 10여 평 넓이의 풀밭에 뒤엔 이끼 낀 돌담이 둘러고 두께 25m 가량의, 구멍이 송송하고 네모 판판한 돌 제단이 괴어져 있다. 남향단 제단 앞에는 오목하게 가운데가 도려내진 동그란 화산석이 놓였고 옆에는 30cm 가량의 곱게 다듬어진 나뭇가지 3개가 가지런히 걸쳐져 있다.

칩오름을 끼고 북에서 동쪽과 남쪽으로 흐르는 효돈천은 숲이며 바위가 어우러져 절승을 이루는데, 이 내가 북쪽의 영천오름을 가운데 끼고 양쪽에서 흘러오다 칩오름 북쪽에서 합류하는 곳에 여기소(女妓沼)라는 못이 있다. 고양이가 빠져 죽었다고 하여 ‘고냉이소’라고도 한다. 두 내가 모아져서 구부러지는 이 합수머리는 석벽이 깎아지른 폭 3~4m의 협곡을 이루며 수량이 많을 때는 물살이 세고 깊은 못이 된다.

예전 서울에서 내려온 점마관(点馬官)을 대접하는 향연이 이곳에서 베풀어졌다. 주홍이 무르익자 기상(寄想)의 제안이 나왔다. 미기(美妓)의 공중무(空中舞)야말로 이 경승에 어울리는 최상의 구경거리라는 것이다. 양안에 굵은 밧줄(외나무다리라는 얘기도 있음)이 걸쳐졌다. 아무리 담대했다라도 더구나 여자의 몸으로선 아차하면 저승길의 곡예였다. 거역 못할 엄한 면에 그 관기는 이미 각오를 한 결행이었을 것이다. 곡예가 시작되면서 주홍은 절정에 달했다. 공중에서 하늘거리듯 춤을 추는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이던 순간, 몇 발짝도 못한 그녀의 춤은 허공 속의 낙화무(落花舞)가 되고 말았다.

위 내용은 여기소에 얽힌 비화이다. 한편 칩오름은 ‘신들의 고향’으로 성소시되는 몇몇 오름 중의 하나이기도 한다. 예촌 분향당의 당신(堂神)이 이 오름에서 솟아났다. 분향당은 섬의 민속신앙에서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신당이다. 그 분향당신의 본풀이, 곧 신의 내력담이 이 오름에 얽혀져 내려온다.

백록담에서 태어난 ‘벼르뭇님’은 성장하여 결혼을 하자 새 살림터를 찾



아 차츰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상호 경에 이르고 보니 칠포름에 푸른 군막이 쳐져 있는 것이 보였다. 어떤 어른들이 저렇게 휘황하게 차려 놓고 있을까 싶어 찾아가 본즉 세 신선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할로영산에서 솟아난 '백관님', 강림천자국에서 솟아난 '도원님', 그리고 칠포름에서 솟아난 '도병사'였다. 네 신은 인사를 나눈 뒤 바둑으로써 형 아우를 가리게 되었는데 세 신이 서로 합세 혼수하는 바람에 '브르뭇님'이 막내가 되고 말았다. "세 분을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원하는 곳을 택하여 좌정하십시오." 이리하여 칠포름을 내려와 '백관님', '도원님', 그리고 칠포름에서 솟아난 '도병사'는 위쪽 마을인 예촌의 본향당신이 되고 '브르뭇님'은 아래쪽 보목의 본향당신이 되었다.

## 2. 역사적 환경

### 1) 설촌 유래

신례리에 성(成)·문(文)·조(趙)씨 집안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제주시 봉개동에 살던 양(梁)씨가 그 곳에 거주하기 어려워지자 살 곳을 찾다가 돌아다니던 중에 신례리에 정착하여 성씨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양씨가 신례리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 시기에 관해서는 600년전부터 1200년전까지 견해가 다양한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자세히 알 수 없다. 현재 신례리에 거주하는 사람의 80% 이상이 양씨 성을 가지고 있다.

신례2리에 사람이 들어와 마을 형태를 형성한 시기는 약 120여 년 전, 조선조 말엽으로 추정된다. 윤성표라는 사람은 구성녀라는 여자와 결혼하여 살다가, 1870년 부친이 사망하자 아내를 데리고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산남 쪽으로 길을 떠나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신례2리 마을에 도착했다. 바다와 인접해 있는 곳에 넓은 모래판이 펼쳐 있고 중간에 생수가湧출하므로 식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정착하면서 골창물 옆에 움막을 짓고 고기잡이와 농사를 지으며 살기 시작했다.

## 2) 마을 이름

예촌(禮村)은 고려시대에 ‘狐兒峯/여스므을’이라 하다가, 나중에 ‘狐村兒/여스므을’, 또는 ‘兒’를 표기에서 생략하여 ‘狐村/여스므을’이라고 하였다.

하례리 일대는 『태종실록』(16년 5월 정유)에 ‘狐兒峯/여스현’, 『신증동국여지승람』(권28, 정의현)에 ‘狐兒村/여스현, 狐兒川/여스내, 狐村/여스므을, 狐兒村여스므을, 狐兒橋/여스므을드리’ 『남사록』(권3)에 ‘狐村浦/여스을을개’ 『탐라지』(정의현)에 ‘狐村里/여스므을, 狐兒橋/여스므을드리, 狐村川/여스므을내’ 『탐라순력도』에 ‘狐村浦/여스므을개, 狐村望/여스므을망’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狐村/여스므을, 狐村峰/여스므을봉, 狐村浦/여스므을개’ 『제주삼읍전도』와 『정의군지도』, 등에 ‘狐村峰/여스므을봉, 狐村浦/여스므을개, 禮村里/예촌므을, 梧旨里/가마귀미루’ 『정의읍지』와 『정의지도』, 등에 ‘上禮村里/웃예촌므을, 下禮村里/알예촌므을, 狐村峰/여스을봉’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서중면)에 ‘禮村/예촌, 下禮/알예촌’ 등으로 표기하였다. 『제주읍지』(정의현지, 방리, 중면)에는 “여스므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45리의 거리에 있다. 민호는 49호, 남자는 146명, 여자는 181명이다(狐村里, 百官門里四十五里, 民戶四十九, 男一百四十六, 女一百八十一).”라고 하였다.

‘狐兒峯’은 오늘날 ‘호아현’이라는 한자음만 남아있다. 당시에 도 한자음이 ‘호아현’으로 불렸는지 알 수 없다. 둘째 음인 ‘兒’가 줄어서 ‘狐村’이라고 고도 하였다. 민간에서 그 원래의 음성형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한자 표기 ‘狐兒’는 고유어 ‘여스>여으, 여으의’ 혼독자 표기로 보인다. ‘狐’는 ‘여스’의 혼독자 표기, ‘兒’는 ‘스’의 음가자 표기이다. 결국 ‘狐兒村’은 ‘여스므을’ 정도의 한자 차용 표기로 보인다.

‘狐兒村’에서 중간의 ‘兒’를 표기에서 생략한 것이 호촌(狐村)이다. ‘狐村’을 마을 이름으로 쓰기에 곤란하다고 인식하고, 19세기 중반에 ‘狐’를 ‘禮’로 고쳐 예촌(禮村)이라 하였다. 곧 ‘禮’를 좋아하는 마을, ‘禮’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바꾼 것이다. 이후에 ‘禮村’은 ‘上禮村里> 禮村俚> 新禮里’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新禮’라는 이름은 1905년 이후에 새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1904년의 「삼군호구간간총책」에는 ‘禮村’과 ‘下禮’만 나타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이미 ‘禮村’과 ‘下禮’는 물론 ‘新禮’중 세 개의 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1905년 이후에 새로운 행정 마을로 신례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04년 3월1일 행정 구역 폐합 때 옛 정의군 서중면 禮村里 그리고 新禮里와 爲美里 일부를 통합하여 제주군 서중면 新禮里라 하였다. 1935년 4월부터 남원면 新禮里, 1980년 12월 1일부터 남원읍 新禮里라 하였다. 1940년대 말부터 옛, ‘예촌’과 ‘새왓골’ 일대를 신례1리, ‘굴왓골’과 ‘공세밧개’(공천포) 일대를 신례2리라고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제 시대에 신례리에는 ‘禮村里/예촌마을, 畝田洞/새왓골, 窟田洞/굴왓골, 宗南洞/종남골, 종낭골’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禮村’은 신례리 중심 마을로 오늘날 ‘만지동, 상가동, 간지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지동’은 ‘만지내’ ‘만지넷도’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다. ‘새왓골’은 예촌 남쪽에 있었던 마을로, 한자로 여전동(畝田洞)이라 하였다. ‘새왓’은 ‘떠밭[채]’의 뜻이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한자음 ‘畝田洞’으로 부르다가, 오늘날은 ‘역원동’으로 불리고 있다. 굴왓골은 공천포 서북쪽에 있었던 마을로 4·3 사건 때 폐동되었다.

‘굴왓’은 ‘구렁으로 이루어진 밭’이란 뜻이다. 오늘날은 ‘공세밧개’ 일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곧 ‘공세미’라고 하는 샘이 있는 개라는 뜻으로 ‘공천포’라고 한다. ‘세미’는 ‘샘’의 제주도 방언이다. ‘공’은 ‘거저 생긴’의 뜻을 가진 접두사인지 확실하지 않다. 종남골, 종낭골은 공세밧개 동북쪽에 있었던 마을로 종남동(宗南洞)이라 하였으나, 4·3사건 이후에 폐동되어 지금은 과수원이 되었다. ‘종남골’이라고도 한다. 이 마을 일대를 끼고 바다로 흘러가는 냇가 있는데, 이 냇을 ‘종남내’라 하고 오늘날의 지도에 ‘宗南川’(옛 지도에는 宗木川 /종남내 또는 절뚝내 등으로 표기)으로 표기하였다. 종남, 종낭은 ‘때죽나무’의 방언일 수도 있고, 마소가 들어가지 못하게 조심하라는 표시로 농작물을 재배 중인 밭에 쫓는 장대를 뜻할 수도 있다.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참조)

### 3) 유물, 유적

#### (1) 신례1리

##### ① 신례1리 하жат성

신례1리 하жат성은 1140번지 과수원내에 일부 남아있다. 높이는 130, 폭은 80cm 정도의 조선시대 잣성으로 겹담으로 견고하게 쌓아졌다. 그러나 과수원이 조성되면서 하жат성의 돌들이 과수원 경계담을 만드는 데 이용되어 현재는 대부분이 허물어져 잣굽으로만 남아있는 곳도 있다.

##### ② 신례1리-위미1리 하жат성

남원읍 신례1리-위미1리 하жат성은 신례교 옆 도로에서 북쪽으로 100m 지점, 도로좌측의 신례1리 '만지동' 과수원부터 위미1리 과수원지대 약 1.5km 구간에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1565전, 1460-1임, 1455임, 1775임). 높이 130cm, 폭 30cm 규모로 길이 200m 정도 동서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하жат성이 겹담구조인데 반해 이 곳의 하жат성은 외담구조로 되어 있다. 겹담형태의 하жат성이 나중에 과수원 돌담으로 되면서 외담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③ 양금석 가옥

양금석 가옥은 신례리의 양씨 종가택으로 600여 평의 대지에 안거리와 밖거리로 이루어진 이자형(二字形) 초가이다. 가옥 울타리 재 전체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안거리는 3칸집으로 큰방, 상방, 정지로 구성되었다. 큰방과 정지 간살 뒤쪽으로 고팡이 배치되었다. 밖거리 역시 3칸으로 방·고팡, 상방, 작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방과 방 간살 전면과 상방 간살 후면에 툇마루가 배치되었다. 양씨종가택은 전체적으로 안팎거리를 통틀어 방이 넷, 툇마루가 셋, 그리고 상방도 셋이 배치되어 있는 등, 제주도 전통 초가 양식 중에서 다양한 공간구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

다. 모커리(결채의 제주어)는 증축된 지 그리 오래지 않았으며 창고와 쇠막으로 이용되고 있다. 1930년대 전통가옥으로서 신례리 131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2001년 12월 12일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제주도 지정 민속자료 1-45호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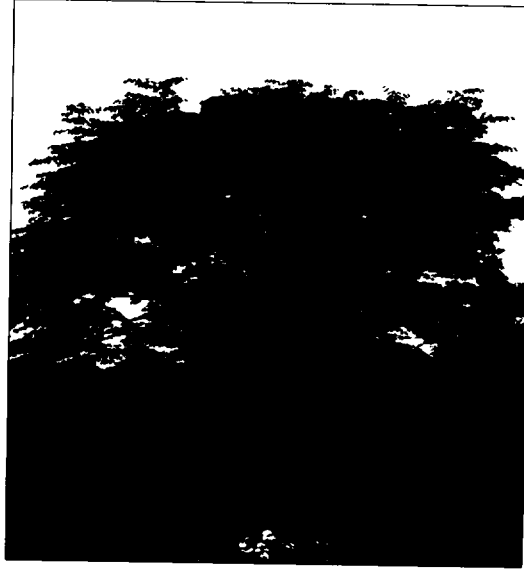
#### ④ 왕벚나무 (소재지: 제주 남제주군 남원읍 신례리 산2-1)

왕벚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는 나무로 꽃은 4월경에 잎보다 먼저 피는데 백색 또는 연한 홍색을 띤다. 지형이 높은 곳에 자라는 산벚나무와 그보다 낮은 곳에 자라는 울벚나무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이란 설도 있으나, 제주도와 전라북 대둔산에서만 자생하는 우리나라 특산종이다.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는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가는 길목 산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왕벚나무는 한때 일본의 나라꽃이라 하여 베어지는 수난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일본에는 왕벚나무의 자생지가 없으며 순수한 우리나라의 특산종으로서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왕벚나무가 도입되어 가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왕벚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지로서 그 수가 매우 적은 희귀종이므로 생물학적 가치가 높고, 식물지리학적 연구가치가 크므로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1908년 4월 15일에 Taquet 신부가 한라산 북면 관음사(觀音寺) 부근의 숲속에서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왕벚나무의 학명은 1901년 동대교수(東大教授)였던 Matsumura에 의하여 일본 내 재식식물(日本内栽植植物)을 기준으로 제정했으며, 1932년에 일본 경도대학(京都大学) Koizumi교수는 한라산 남면 해발 500m 숲속에서 왕벚나무가 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본학자들은 일본 내에서 왕벚나무의 자생지를 찾으려고 애썼으나 결국 찾지 못했고 일본국립유전학연구소장이었던 죽중요(竹中要) 박사는 왕벚나무를 일본산인 일명(日名) Ohshimasakura와 dohigan의 잡종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잡종설을 강요하기도 했다. 8·15 해방후에는 우리나라 각처에 심어졌던 왕벚나무를 일본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베어버리는 일이 일어나 왕벚나무들은 크나큰 수난을 당한 바 있다. 신례리 왕벚나무는 제주시에서 서귀포에 이르는 횡단도로 우측의 숲속에 있는 것이다. 이 왕벚나무는

소천교수(小泉教授)가 발견했던 왕벚나무의 지점과 거의 같은 곳에 자생하는 왕벚나무이다.

- 지정면적: 9,917㎡
- 지정일: 1964-01-31



<신례1리 왕벚나무>

## (2) 신례2리

### ① 신례리 고인돌 1호

신례리에서 상동으로 표고 20m 정도의 언덕에 위치하여 공천포 마을이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상석은 길이 200cm, 폭 235cm, 두께 52-91cm로 북쪽을 장축 방향으로 하고 있다. 지석의 고임상태와 상석의 돌 다듬질 상태로 볼 때 정면은 정동향으로 판단된다. 상석 하단의 지석은 두툼한 깎들을 3,4중으로 고이고 있다. 정면은 상석 측면이 직벽으로 다듬어져 적석레벨에서 약 55cm 가량 들리워져 있다. 상석의 주변으로 타원형의 적석부가

만들어져 있고, 이 적석부는 크고 작은 현무암 자연석을 사용하고 있으나 가장자리 테두리만은 큰 할석을 정연하게 돌려 축조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지석묘는 제주도에서 발견 예가 없는 특수형태 중 하나이다. 유물은 꼭지리식토기가 주류를 이루며 축조연대는 탐라전기로 상정할 수 있다.

### ② 신례리 바위그늘 유적

서귀포와 위미간 12번 국도(하례-신례2리간)변, 즉 세기내 다리에서 북쪽으로 100m지점인 하류 동벽에 지리한 이 유적은 해안과의 거리가 700m 정도이며, 하천의 급류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바위그늘이다. 바위그늘이 트인 방향은 북서 방향이며, 그늘 면적은 대략 5평 남짓 된다. 전체규모는 입구의 동서 길이가 8.6m, 입구의 높이가 2.4m이며 안으로 들어갈수록 낮아진다. 안쪽 끝까지의 길이는 4.2m이다. 테스트 핏트조사 결과, 층위는 회색 모래층(1층), 회색 재층(2층), 흑갈색 부식토층(3층)으로 약 50cm 정도가 퇴적되어 있으며 유물은 주로 1·2층에서 출토되었다. 시대는 탐라시대 전기로 추정된다.

### ③ 신례리 유물산포지

이 유적은 서쪽의 서귀포시와 동쪽의 남원읍을 경계로 효돈천, 신례천, 종남천 등의 크고 작은 하천 5개가 남쪽 해안으로 흐르고 있으며 완만하고 평탄한 대지상의 해발 20, 30m 범위 내에 형성되고 있다. 신례천과 효돈천 사이 상호 1km 내외에서 고인돌 3기와 그 주변에서 꼭지리식토기에 속하는 적갈색토기편이 다량 출토되는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다. 제주도 동남부지역으로는 유일하게 구엄토양군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효돈천과 하례천 사이에는 양질의 미사질 양토가 주로 분포한다. 해안가 (공천포)에는 속칭 '공샘'이라는 용출량이 많은 용천수가 발달하여 용수조건 또한 좋은 편이다. 여기서 수습되는 유물은 적갈색토기편들로 두께가 1.0cm 이상되며, 태토는 꼭지리식토기와 유사하다. 남원읍 신례리 704번지 일대에 분포되어 있다.

#### ④ 신례리 고인돌 2호

신례리 롯데공장에서 동쪽으로 350m 되는 국도변에서 북쪽으로 5m지점인 감골과수원 돌담벽에 위치한다. 상석의 평사각도가 1~3° 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평평하나, 북쪽이 남쪽보다 다소 높다. 상석은 장축 210cm, 단축 180cm, 두께 55~83cm이며 장축방향은 북을 가리키고 있다. 상석의 상면과 측면은 모두 채흔이 뚜렷하다. 상석하면의 네 귀퉁이에 흠줄 흔적이 미미하게 보인다. 현재 확인되는 지석은 상석의 남동쪽과 남서쪽에 있다. 모두 3,4중으로 작은 할석과 친석을 사용하여 고여 있다. 출토유물은 길이 15cm 가량의 공이들과 짝지리식토기 동체부 파편이 동남부분과 남서쪽부분에서 확인되어 탐라시대 전기에 축조된 묘제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신례리 245번지에 위치해 있다.



<신례리 고인돌 2호>

#### ⑤ 신례리 와요지

'신례2리사무소' 남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지금은 주거지역과 감골과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지면 고르기까지 되어있는 상태여서 와요(瓦窯)의 규모나 양상을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 일대의 과수원과 주거지역에 산포되어 있는 와요에 사용되었던 재료나 파편으로 볼 때에 조선시대 와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신례2리 85번지에 위치하여 있다.



## 4) 4·3 사건

1948년 11월 중순께부터 초토화 작전을 전개하면서 신례1구에 대해서는 한동안 소개령을 내리지 않았다. 해변에서 불과 2km 남짓 떨어진 곳인데다가 마을에서 별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48년 12월 11일에 내려진 토벌대의 뒤늦은 소개명령은 이 마을의 운명을 갈랐다. 이 날 주민들은 짐을 싸 해변마을로 옮기느라 하루 종일 분주히 보냈다. 토벌대의 명령에 따라 신례1구와 신례2구 사이에 있는 속칭 '항에골'에 일단 짐을 풀었다. 이튿날인 12월 12일은 해변마을인 신례2구(공천포)로 이주하기로 계획된 날이었다. 주민들이 새벽부터 일어나 나머지 이삿짐을 막 꾸리려 할 때 갑자기 학생연맹 소속 학생들이 일부 가옥에 들이닥쳤다. 이 때 양재순(梁才順)이 학생연맹에게 이리저리 끌려 다니다 학살되었다. 정석남, 양성연, 양우석도 이 날 학생연맹에게 끌려갔는데 이들은 이후 행방불명되었다.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머지 주민들은 예정대로 소개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줄지어 이동하던 주민들이 항에골에 다다르자 토벌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토벌대는 다짜고짜 주민들을 구타하기 시작했다. 양기득(당시 30세)은 못매를 맞고 처참한 모습으로 숨졌다. 또 양남석(梁南錫 당시 27세), 양중범(梁仲範 당시 23세), 양완주(梁完胄 당시 18세)가 총살되었다. 토벌대는 이어 일부 주민들을 호명하기 시작했다. 위미지서(주임 강아무개) 소속 김아무개 순경은 일부 주민들 등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여 분류한 후 지서로 연행했다. 이 때 끌려간 정옥주의 아내 양재만 오을출, 양재남, 양인숙, 양남철, 양성현, 양남성, 양승태, 양영오 등이 이튿날인 12월 13일 위미지서 뒷동산 속칭 '마메기모루'에서 집단 총살되었다.

한편, 12월 12일 소개하던 중 연행된 양시현, 양봉주, 양원중은 서귀포로 넘겨져 12월 20일 총살되었다. 역시 소개하던 중 연행된 양신경, 양봉률, 양재춘, 양학현, 양군옥, 이찬영 등은 육지형무소로 넘겨졌다가 6·25 이후 행방불명 되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망 날짜와 장소는 조금씩 다르지만 앞에 열

거한 의생들은 모두가 12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벌어진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토벌대는 도대체 왜 이때 갑자기 뒤늦은 소개령을 내렸으며, 왜 주민들이 소개하자마자 끌고 가 총살했는가.

소개하던 날 새벽 학생연맹이 일부 주민을 연행한 것이나 항에골에 내려온 사람들을 분류해 끌고 갔던 점으로 봐서 토벌대는 어떤 '명단'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마을 상황에 비춰 볼 때, 그 명단 속의 인물들은 집안에 젊은이가 피신한 소위 '도피가족'이거나 혹은 '무장대 지원자'로 지목된 사람들로 추정된다. 그 명단이 어떤 근거에 의해 작성된 것이든, 아니면 무고에 의한 것이든 비무장 주민들을 즉결 총살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희생자들은 토벌대의 명령에 순응해 소개 내려오던 사람들이었다.

주민들이 소개하기 전까지 가만히 놔뒀다가 소개하자마자 끌고 가서 총살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추정된다. 총살극은 예정된 것이었고 뒤늦은 소개령은 일종의 함정이었다. 토벌대가 갑자기 마을을 덮친다면 많은 주민들이 피신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벌대는 12월 12일 주민들이 모두 소개하는 사이에 직접 신례1구를 덮쳐 마을 안은 물론 북쪽의 들녘을 샅샅이 수색했다. 이 때 이승이오름 부근 냇가에 숨어 있던 양춘생이 잡혀 그 자리에서 총살되었다.

양춘생의 시동생 정기성은 12월 12일 새벽 악생 연맹에게 끌려갔던 사람이다. 총살 직전 탈출한 정기성은 피신하자마자 형수의 사망소식을 들었다. 정기성 씨의 가족사에는 4·3의 뼈아픈 상처들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정씨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두 살 위인 형 정석봉은 위미국교 교사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경찰에게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형이 피신하자 경찰이 우리 집을 불 질렀습니다. 그러자 형은 형수와 어린 조카까지 데리고 이승이오름 부근으로 피신했습니다. 형은 내게도 '여기 있으면 나 때문에 죽는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함께 피신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는 형제뿐인데 함께 행동하다간 대(代)가 끊길지 모른다. 누가 죽든 한 명은 살아야 할 것 아니냐'며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소개하라고 하더군요. 전날 이삿짐을 대충 나르고 다음

날인 12월 12일 새벽에 내려가려는데 갑자기 학생연맹 소속 중학생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양재순, 양봉선, 그리고 정씨 집안에 시집 온 여자(양씨) 등 4명이 함께 끌려나왔습니다.

학생연맹은 우리를 신호지서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매를 맞고 있는데 위미지에서 우리를 데리러 왔어요. 자기들 구역이라는 겁니다. 다시 위미리로 오는데 양재순 씨는 너무도 많이 맞아 잘 견지 못했어요. 경찰은 즉각 카빈총 두 발을 쏘았습니다. 결국 우리 세 명은 팔목을 뒤로 묶인 채 위미지서 창고에 갇혔어요. 그날 밤은 당장 비가 올 것 같아 캄캄했습니다. 팔목이 묶일 때 힘줘서 여유를 만들었더니 결박을 풀 수 있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고향을 향해 뛰었습니다. 마을에는 아무도 없고 어디선가 닭 우는 소리가 너무나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위쪽으로 계속 오르다 보니 이승이오름 부근에 몇몇 사람들이 피신해 있더군요. 거기서 형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신을 가매장했습니다. 그런데 곧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잡혀가던 날 소개 내려갔다가 위미지서로 끌려가 12월 13일에 총살당했습니다. 어머니는 현장에서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요행히 총을 한 발도 맞지 않은 겁니다. 난 신호지서와 위미지에서 잘 견지 못할 정도로 맞아 그곳에 계속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이오름은 목장지대여서 주위가 흰히 보였기 때문에 토벌대에게 발각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서너 명이 숲이 우거진 보리오름 주변에 숨어 지냈습니다.

숨어 지내던 정씨는 이듬해 봄, 귀순했으나 마포형무소로 보내졌다. 6·25 때 옥문이 열려 풀려난 정씨는 5년여 목포에서 머물다 고향에 돌아왔다. 도착 즉시 제주경찰서에 자수했지만 집에는 가보지도 못한 채 재수감되어 12년 간의 옥살이를 하는 기구한 운명을 겪었다. 그런데 정씨의 형수 양춘생이 토벌대에게 죽을 때 그녀의 곁에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 양춘생의 아들은 다섯 살 때 겪었던 일들을 생생히 기억했다.

이승이오름 부근 계 안에는 동네 사람 20여 명이 숨어 있었는데 토벌대가 들이닥치자 뿔뿔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나를 안고 냇가 쪽으로 도망쳤지만 곧 잡혔습니다. 어머니는 숨겨 가면서도 ‘어린것만은 살려줍서’라며 울며 빌었어요. 그리고 내게 ‘외갓집에 가서 살라’며 숨겼습니다. 마침 토벌대

와 함께 올라 온 사람 중에 어머니 친정 마을인 하례리 분이 있어서 나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여러 군데 창에 찢려 돌아가셨습니다. 총이었다면 고통이 덜했을 텐데.

집단총살 때는 구사일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소개하던 중 끌려간 정화중(당시 20세)은 12월 13일 위미지서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총살당할 때 팔에 총을 맞고 기절했다. 깨어보니 시신들 틈에 끼여 구덩이에 던져져 있었다. 정신을 차려 산으로 도망친 정화중은 총상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신례2구로 소개한 가족들 품으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곧 발각되었고 그의 부친 정기흠(당시 57세), 그리고 친척인 정봉주(당시 62세)까지 끌려나왔다. 1949년 1월 8일 토벌대는 닷새 전 무장대에게 피습 받은 하례리까지 이들을 끌고 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창으로 난자한 후 총살했다.

한번 토벌대의 눈총을 받은 신례1구 주민들의 희생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1949년 2월 태흥리에 주둔한 2연대는 오송(여, 당시 56세), 김여운(당시 48세) 등 6명을 ‘도피자가족’이라 하여 끌고 가서 학살하였다. 도피 생활에 지친 정순중(鄭純鍾, 당시 28세), 양보현(당시 22세) 등이 1949년 봄 귀순했다가 서귀포경찰서로 끌려가 행방불명된 것을 끝으로 더 이상의 희생은 없을 듯 보였다. 그러나 1950년 6·25가 발발하자 정옥주(정옥주, 당시 58세) 양재추(당시 37세), 양덕철(당시 31세), 이동규(당시 29세), 양태우(당시 26세), 이상규(당시 26세), 양군찬(당시 22세) 이찬학(당시 19세) 등이 예비 검속되어 또다시 큰 희생을 치렀다.

4·3을 치르면서 ‘한참(2km)’을 사이에 둔 신례1구와 신례2구 주민들은 더욱 가까운 이웃이 되었다. 해변에 위치한 신례2구는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신례1구에서 소개 온 사람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했다. 그러나 신례2구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소개민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어린 시절 소개생활을 했던 한 주민은 “고마움을 잊지 못해 지금도 서로 친부모, 친형제처럼 지낸다.”라고 말했다.

### 3. 인문적 환경

#### 1) 산업현황

##### <신례1리>

면적	계(ha)	전	과수원	임야	기타
	2,642.6	40	497	2044.6	61
인구	계(2004.12.31현재)	남		여	
	1,576	835		741	
마을재산	마을회관	경로당	목장	공동묘지	게이트볼장
	1	1	1	1	1
주요시설	학교	농협	금고	의료시설	
	1	1	1	1	
자생조직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영농회	작목반
	1	1	1	3	4

##### <신례2리>

면적	계(ha)	전	과수원	임야			
	208	1	127	10			
가구	계(가구)	농가	어가	기타			
	226	130	71	25			
인구	계(명)	남	여	비고			
	596	309	287	2004.12.31일 현재			
마을재산	마을회관	경로당	창고	목장	공동묘지	기타	
	1	-	-	-	-	-	
자생조직	노인회	원로회	부녀회	청년회	영농회	작목반	기타
	1	1	1	1	1	1	1

신례리는 남제주군 남원읍에 위치한 마을들 중에 위미리에 이어 2번째로 큰 마을로서 인구는 2004년 12월을 기준으로 신례1리는 511가구, 1567명(남: 835명, 여: 741명)이 신례2리는 213가구, 596명(남: 309명, 여: 287명)이 살고 있다. 30여년전까지 신례1리는 조, 콩, 수수 등의 밭농사가 중심을 이루었고 신례2리는 물질을 중심으로 산업이 중심이 되었지만 현재에는 마을 농사 대부분이 감귤농사다.

신례2리에는 지금도 물질을 하는 여자들이 있긴 하지만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전승도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신례2리도 신례1리와 마찬가지로 점점 감귤농사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신례1리의 경우 집과 감귤밭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편이지만 신례2리는 마을을 나와 신례1리로 가는 길인 '항애골'에 감귤밭이 있다.

2004년 8월에 신례리에 '제주생물종 다양성 연구소'가 설립된다는 소식이 지방지는 물론 전국 일간지까지 실린 적이 있다. 제주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설립은 과학기술부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2008년까지 250여억원이 투입되어 제주도의 육상 및 바다 동, 식물의 7천여종의 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개발, 보존사업을 추진하는 거점연구소로 육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에서 많은 인력들이 들어올 것이 확실시 되며 그 과정에서 많은 부가적 창출과 경제적 효과의 파급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례리는 나비마을 지정을 위한 유치 신청서도 내었다. 이는 신례리가 현실에만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남제주군도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신례리는 현재보다 앞으로가 기대되며 지금과는 다른 산업구조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 2) 교육기관

신례1리와 2리의 공식적인 교육기관은 신례초등학교 한 곳이다. 학생들은 모두 신례1리와 2리 지역에 거주하며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인근 지역의 효돈중학교로 진학한다. 초등학교 이전의 교육기관으로는 서당이 있었고 마을 노인분들, 할아버지들 대부분이 서당에서 한문을 교육받았다. 현

재는 신례초등학교 이외에 취학 전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 1곳이 있으며, 신례교회에서 주최하는 노인대학이 있다.

### ① 신례초등학교 설립경위

해방되기 이전까지 신례리 아동들은 원거리인 위미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통학에 매우 어려움이 많았으나 1945년 8월 15일 감격의 해방과 아울러 조국이 광복을 맞이하게 되자 마을에 학교설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어 학구민 일동은 국민학교 설립을 위하여 설립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발한 추진활동의 보람으로 1946년 10월 30일 신례초등학교로 설립인가를 받게 되었다.

### ② 신례초등학교 주요연혁

- 1946. 10. 30 신례초등학교 설립인가
- 1946. 11. 29 신례초등학교 개교
- 1948. 11. 15 4·3사건으로 인하여 폐교
- 1949. 8. 1 하례초등학교 신례분교장 인가
- 1955. 6. 10 신례초등학교 설립인가
- 1955. 6. 20 신례초등학교 개교
- 1980. 3. 19 학급 편성
- 1980. 3. 10 새학교 건설에 의한 학교 이설 완료
- 1982. 5. 11 제주도교위 지정 특활시범 전도 공개
- 1983. 9. 9 농촌형 급식 학교지정
- 1986. 11. 15 제주도교위지정 급식연구학교 및 농수산부지정 식생활개선 협력학교 전도 공개

## 4. 세시풍속

### 1) 출산

산모의 음식은 생산 직후에는 메밀수제비 그 다음 며칠간의 식사에는 미역국을 끓여 먹었다고 한다. 또한 생후 3일째 아침 보시기에 셋에 메를 떠놓고 일정한 길이로 자른 띠 몇 개씩을 꿰은 채 보통 유아 머리맡에 놓아두는데 이를 할망본이라 하며 출생을 관장하는 삼승할망에 대한 성의라고 한다.

### 2) 혼례

옛날에는 조혼을 시켰기 때문에 현대와는 달리 남자의 나이가 여자보다 어린 경우가 많았다. 신례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부부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부인이 남편보다 나이가 많았다. 신부와 신랑의 만남은 집안끼리 중매로 사전합의 후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신부의 고향은 타지인 경우가 많았다. 가까운 곳인 하례리, 위미리를 비롯, 서귀포 출신도 있으며 멀리서는 북제주군 애월이나 모슬포까지 신부를 데려왔다.

혼수로 신랑은 집이나 밭을 준비했고 신부는 이불정도를 마련했다고 한다. 또한 가마를 텍끼라고 하여 가마 앞뒤로 말을 묶어 신부를 신랑집으로 보냈는데 이 때 신랑도 신부집에 들려서 같이 왔다고 한다. 이 의식이 결혼식, 그 자체로써 특별한 의식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생활양식의 변화로 신랑은 양복을, 신부는 드레스를 입으며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에 예식장을 마련했다가 1970년대 이후 교통의 발달로 서귀포에 와서 서귀포의 예식장에서 현대식 결혼 풍습이 행해졌다.

### 3) 상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제를 삼베로 상복을 지어입고 남상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여섯마다의 대나무 막대로 짚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머귀



나무 막대를 짚는데, 그 까닭은 아버지는 생존시 자녀에 대한 생각을 대나무 마디처럼 드물게 하고, 어머니는 머귀나무의 가지처럼 세심히 한다는 뜻으로 어머니의 사랑이 더 진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며 벗짚을 여섯 마디로 묶어 만든 북심은 3년상 동안 묘지 또는 상 앞에서 누워 잘 때는 베개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상제는 부모가 생존할 때 효도를 하지 못한 죄를 조금이라도 씻고자 3년상을 치를 때까지 죄인이라 자칭하며 외출시에도 상복을 입고 다녔으며 상례시마다 곡소리를 한다. 오늘날은 의례 간소화로 백일상 또는 돌상으로 끝난다.

#### 4) 제례

부모,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리기 위해 돌아가신 전날 자정을 기해 엄숙히 지내며 옛날에는 고조까지 모셨다. 주로 떡을 올렸는데 모양이 다양해서 솔편, 절편, 인절미, 시루떡, 으떡 등을 올렸다. 떡마다 상징하는 자연물이 있는데 절편은 해님을, 솔편은 달님을, 인절미는 밭과 땅, 으떡은 바람이 그것이다. 이는 농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신례리는 아직까지 제를 지낼 때 이 떡들을 올린다. 본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자꾸신(잡귀신)을 대접한다고 하여 상을 차려냈다.

■ 조사자: 양원혁(04), 강동석(05), 안군(05), 이현정(05)